

건설경기 침체 속 전라권 회원사 한목소리

대한건설협회, 정책 간담회 열고 업계 현안 점검... 원자재 상승·인력난·제도 부담 개선 촉구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전라권 회원사들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9일 세종사무소에서 전북·전남·광주 지역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업계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해 소재철 전북특별자치도회장, 박경재 전남도회장, 황인일 광주시회장 등 전국 시·도회장과 전라권 회원사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9일 세종사무소에서 전북·전남·광주 지역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업계 현안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경영난을 겪는 중소 건설사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중소 건설사의 안정적인 기업 승계를 위한 유의사항과 사전 준비 전

략을 주제로 한 강연도 진행됐다. 한승구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

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소재철 도회장 역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분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회원의 권익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29일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우범기)와 새로운 문화적 가치 창출 및 상호 우호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은행-전주국제영화제 '맞손'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메인스폰서 참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지역 대표 문화 축제인 전주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선다.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29일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우범기)와 새로운 문화적 가치 창출 및 상호 우호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독립·예술영화의 산실로 자리 잡은 전주국제영화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금융과 문화 콘텐츠가 결합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은행은 이번 영화제의 메인스폰서로서 전폭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영화제 기간 중 관객들의 편의를 위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북은행은 전주영화의거리리를 비롯한 주요 행사장 인근에 이동영업점인 '쓱버스'를 배치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을 찾은 국내외 관객과 시민들은 복잡한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범기 조직위원장과 민성욱·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 박춘원 전북은행장 등이 참석해 전주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오상근 기자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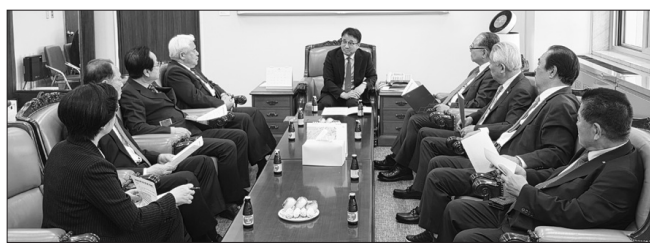
전북개발공사, 조경·전기공사 착공... 2027년 6월 준공 목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일원에서 추진 중인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경 및 전기공사 착공으로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고창 덕산지구에서 조경공사와 전기공사를 시작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은 지난 2023년 12월 문화재 조사와 토목공사에 착수한 이후

약 2년 만으로, 전체 사업 일정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고창 덕산지구는 총면적 15만2000㎡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으로, 2027년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동주택용지 3개 블록 1191세대와 단독주택 20세대를 포함해 총 1211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이와 함께 준주거용지 13필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경 및 전기공사 착공으로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지가 계획돼 지역 생활 인프라도 확충될 예정이다.

특히 약 3만㎡ 규모의 공원 3곳과 녹지 4곳이 조성되며, 다양한 수목 식재

와 휴게공간 배치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주거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비수도권 세계개편 포럼 열어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세계 개편 필요성을 논의하는 포럼을 열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세계개편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북·전남·경북·경남 등 4개 권역 상공회의소가 참여하는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 주최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김원오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용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도내 상공회의소 관계자



와 지역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세 제도가 기업의 투자와 인지도, 고용뿐 아니라 개인의 거주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며,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주요 세제의 비수도권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에 앞서 참석자들은 전북 지역

구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세계 개편의 필요성과 입법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포럼은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계 개편 방안' 주제 발표로 시작됐으며, 오준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박진 KDI 정책대학원 교수, 정승영 창원대학교 교수, 박근우 경북연구원 전문위원, 김지혜 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장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김지혜 회장은 비수도권 기업이 체감하는 세계 불균형과 경영 부담을 지적하며 지역 현안을 반영한 차등적 세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 직거래 장터 정례화

국민연금공단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 장터 '연금이네 장터'를 매월 정기 운영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본부 1층 로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직거래 장터를 매월 개최해 지역 상생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금이네 장터'는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된 프로그램으로, 임직원의 지역 상품 소비 참여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립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정기적인 장터 운영을 통해 연간 약 6천만 원 규모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제2차 전북지역 고용아카데미' 열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일자리 유관 기관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협력 강화를 위한 고용아카데미를 열고 현장 중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지자체 등 도내 일자리 관련 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전북지역 고용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급변하는 고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자 전문성 강화와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실무 중심 강의와 인문학적 소양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구직자 성향 이해와 일자리 지원 실무'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는 다양한 구직 유형별 상담 전략과 실제 사례 기반 해결 방안이 제시돼 참석자들의 실질적인 업무 이해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구직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취업 연계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현장 노하우가 공유됐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역사'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전문가'로서의 인식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전북지역 고용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협력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지역 맞춤형 고용 정책을 현장에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